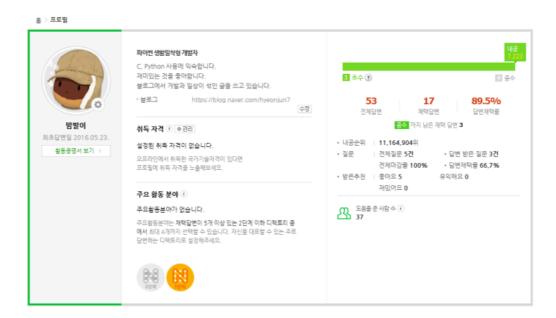
정말 뜬금없이 지식iN이 하고 싶어져서, 아까부터 지금까지 51개의 답변을 했다. 프로그래밍 관련 질문 위주로 답변했다.



지식iN 답변을 하면서 느낀 점.

1.

답변 작성 전까지 아무 답변도 없었는데, 작성하고 나니 먼저 답변이 달려서 채택을 놓치는 경우에 꽤나 슬프다. 이건 그나마 답변이라도 달리지, 코드 작성하고 정리해서 글까지 다 썼는데 질문이 삭제되면 억장이 무너진다. 작성자가 글 지우는 것에 큰 패널티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답변이 달린 질문은 지울 수 없으니, 일단 작성중이라고 답변을 달아 놓고 수정을 하는 식으로 해도 괜찮을 듯.

2.

답변자를 고려한 질문이 많지 않다고 느꼈다.

답변하기 좋게 질문을 작성해야 더 빨리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이고, 어디까지는 아는데 어느 것을 모르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프로그래밍 관련 질문의 경우 코드를 캡처 사진보다는 텍스트로 올려주어야 답변자가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는다.

3.

이래도 되나?

수행평가, 과제, 시험 문제로 보이는 문제를 대신 풀어주고 답변해줘도 되나 싶은 생각.

대부분 답변이 숙제 대행에 가깝다.

미래 교사 될 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모르겠다.

엑스퍼트 한 번 해보고 싶다.

지식iN 지존등급 이상이며 관련 지식iN 분야에서 채택 답변수 300건 이상이거나, 정보처리기사이거나, 블로그로 IT 테크 인플투언서여야 한다.

올해 안에 조건 하나는 충족하지 않을까?